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Vol.46 _ 2013. 11 | 맹영임 선임연구위원

탈북청소년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방안

NYPI YOUTH REPORT

VOL.46 _ 2013. 11 www.nypi.re.kr

발행일 2013. 11. 30 발행인 이재연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주 소 서울시 서초구 태봉로 114 교총빌딩 9/10층 전화 2188-8800 팩스 2188-8869

제 작 계문사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탈북청소년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방안

VOL.46 _ 2013. 11 ▶ 맹영임 선임연구위원

I. 탈북청소년과 일반(남한)청소년의 상호인식 실태	03
II. 탈북청소년 지원체계 현황	11
III. 탈북청소년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방안	15

탈북청소년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방안¹⁾

요약

- 우리나라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의 수는 해마다 증가하여 1998년 71명이었던 북한이탈주민의 수는 2012년 12월 기준 현재 24,614명에 이르게 되었고, 탈북청소년(6-20세)들도 따라서 많아져 약 20%정도인 3,000여명에 이르고 있음.
- 탈북청소년의 경우 입국하면 한국사회 정착을 위한 3개월의 초기 적응훈련교육을 받은 후 정착지의 초·중·고등학교에 편입학하거나 특성화 중·고등학교, 또는 탈북청소년을 위한 대안학교에 입학하지만 적응과정에서 다양한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음.
- 이러한 다양한 문제에 대한 대처방안은 우리사회에의 적응을 촉진시키고자 하는 것이 대부분이었지만 이제는 적응이상의 대처방안인 사회통합 방안 마련이 필요하게 되었음.
- 탈북청소년들이 우리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역량과 적응능력을 키우는 것도 중요한 문제지만 탈북청소년을 둘러싼 우리사회의 시각과 관심이 더욱 중요한 문제가 되기 때문임. 특히 탈북청소년들이 일상생활에서 접하게 되는 일반(남한)청소년들과의 상호인식 및 관심의 문제는 탈북청소년들의 적응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중요한 요인이며, 진정한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탈북청소년들과 일반(남한)청소년들의 편견 없는 태도형성 및 상호 부정적 고정관념의 제거가 필수적인 요인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책적 대안 마련이 매우 시급하고 중요함.

1) 2013년 기관 고유과제 '탈북청소년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방안연구' 결과를 요약·정리한 것임.

I . 탈북청소년과 일반(남한)청소년의 상호인식 실태²⁾

■ 탈북청소년의 자기인식과 상호인식 차이

- ▶ 일반(남한)청소년들이 바라보는 탈북청소년들에 대한 이미지보다 스스로 인식하는 이미지가 더 긍정적임.
 - 탈북청소년들은 자신을 포함한 탈북청소년들에 대해 대부분 친절하다(3.53), 깔끔하다(3.47), 적극적이다/성실하다(3.39), 자신이 행복하다고 생각한다(3.35), 공평하다(3.34) 등의 항목 순으로 상대적으로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 반면, 일반(남한)청소년들은 탈북청소년들에 대해 대부분 성실하다(3.36), 돈을 잘 안 쓴다(3.26), 친절하다(3.18), 적극적이다(3.15), 자신보다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다(3.09), 공평하다(3.07) 등의 항목 순으로 상대적으로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나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

【표 1】 탈북청소년들의 자기인식과 상호인식 평균차이

항 목	자기인식 평균 ¹⁾	상호인식 평균 ¹⁾	평균차이	t	Sig.
친절하다	3.53	3.18	.354	5.061	.000
경쟁심이 많다	3.31	2.99	.324	4.468	.000
공평하다	3.34	3.07	.271	3.801	.000
거칠다	3.10	2.85	.259	3.444	.001
성실하다	3.39	3.36	.023	.326	.745
돈을 잘 안 쓴다	3.15	3.26	-.114	-1.546	.122
적극적이다	3.39	3.15	.234	3.282	.001
이기적이다	3.06	2.77	.285	4.356	.000
불만이 많다	2.99	2.71	.290	3.920	.000
깔끔하다	3.47	2.79	.680	9.731	.000
자신이 행복하다고 생각한다	3.35	2.93	.417	5.487	.000
자신보다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많다	3.24	3.09	.152	2.293	.022

1) 전혀 아니다(1점), 아니다(2점), 보통(3점), 그렇다(4점), 매우 그렇다(5점)으로 환산한 후 평균임.

2) 조사대상은 초등학생(5~6학년)과 중학생으로 탈북청소년은 201명, 일반(남한)청소년은 805명임.

■ 일반(남한)청소년의 자기인식과 상호인식 차이

- ▶ 탈북청소년들이 바라보는 일반(남한)청소년들에 대한 이미지가 스스로 인식하는 이미지보다 더 긍정적임.
- 일반(남한)청소년들은 자신을 포함한 일반(남한)청소년들에 대해 대부분 경쟁심이 많다(3.78), 깔끔하다(3.59), 자신이 행복하다고 생각한다(3.57), 적극적이다(3.54), 불만이 많다/친절하다(3.27), 자신보다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다(3.25) 등의 항목 순으로 상대적으로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 반면, 탈북청소년들은 일반(남한)청소년들에 대해 대부분 친절하다(3.69), 경쟁심이 많다(3.62), 적극적이다(3.58), 자신이 행복하다고 생각한다(3.56), 깔끔하다(3.51) 등의 항목 순으로 상대적으로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나 유의미한 차이를 보임.

【표 2】 일반(남한)청소년들의 자기인식과 상호인식 평균차이

항 목	자기인식 평균 ¹⁾	상호인식 평균 ¹⁾	평균차이	t	Sig.
친절하다	3.27	3.69	-.419	-5.672	.000
경쟁심이 많다	3.78	3.62	.155	2.085	.038
공평하다	2.91	3.10	-.182	-2.277	.024
거칠다	3.22	2.88	.332	5.106	.000
성실하다	3.22	3.36	-.135	-1.882	.061
돈을 잘 안 쓴다	2.68	3.12	-.440	-5.992	.000
적극적이다	3.54	3.58	-.048	-.726	.468
이기적이다	3.22	3.05	.172	2.546	.011
불만이 많다	3.27	2.98	.293	4.080	.000
깔끔하다	3.59	3.51	.082	1.229	.219
자신이 행복하다고 생각한다	3.57	3.56	.013	.171	.864
자신보다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많다	3.25	3.20	.044	.630	.529

1) 전혀 아니다(1점), 아니다(2점), 보통(3점), 그렇다(4점), 매우 그렇다(5점)으로 환산한 후 평균임.

■ 탈북청소년의 정체성에 대한 자기인식 및 상호인식

- ▶ 탈북청소년들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고민하고 있으며 일반(남한)청소년들은 탈북청소년을 한국 사람으로 인정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 탈북청소년 1/3이상(38.8%)은 자신을 ‘한국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나, ‘잘 모르겠다’는 응답도 1/3정도(26.9%)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24.3%는 ‘한국 사람이지만 근본은 북한사람(12.4%)’ ‘한국 사람이면서 동시에 북한사람(11.9%)’ ‘북한사람(4.5%)’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중국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경우도 있어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 ※ 탈북청소년 중 자신은 ‘한국 사람’이라는 응답은 여학생, 중국출생, 초등학교, 경상도, 학업성적이 보통이상, 가정형편이 넉넉한 편이라고 생각하는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 학교급, 출생지 등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임.
 - ※ 탈북청소년 중 자신은 ‘북한사람’이라는 응답은 남학생, 북한출생, 중학교, 서울, 학업성적이 낮은, 가정형편이 어려운 편이라고 생각하는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 출생지와 학교급 등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임.
- 일반(남한)청소년 1/3정도(29.4%)는 탈북청소년은 ‘북한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24.0%는 ‘한국 사람이면서 동시에 북한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나 탈북청소년을 한국 사람으로 인정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 ※ 탈북청소년은 ‘북한사람’이라는 응답은 여학생, 초등학교, 경상권, 공부를 못하는 편일수록, 탈북친구가 없는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 학교급, 지역, 탈북친구 여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임.
 - ※ 탈북청소년은 ‘한국 사람’이라는 응답은 남학생, 공부를 잘하는 편일수록, 탈북친구가 있는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 학교급, 성적, 탈북친구 여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임.

■ 탈북청소년 신상공개에 대한 자기인식 및 상호인식

- ▶ 탈북청소년과 일반(남한)청소년의 과반수는 자신이 탈북청소년이라는 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남.
 - 탈북청소년의 과반수이상(55.2%)이 ‘말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으며, 1/3정도(38.8%)만이

‘말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나, 자신이 탈북청소년이라는 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음.

※ ‘말한다’는 응답은 남학생, 북한 출생, 중학생, 경상도, 공부를 잘하는 편이라고 생각할수록, 가정형편이 넉넉한 편이라고 생각할수록, 자신의 정체성을 한국 사람이면서 동시에 북한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 성별, 출생지, 학교급,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인식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보여줌.

※ ‘말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여학생, 중국 출생, 초등학교, 충청도, 가정형편이 어려운 편이라고 생각할수록, 자신의 정체성을 한국 사람이지만 근본은 북한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 성별, 출생지, 학교급,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인식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보여줌.

– 일반(남한)청소년의 과반수(50.2%)는 ‘탈북청소년이라고 말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탈북청소년이라고 말해야 한다’는 응답 역시 과반수정도(48.9%)인 것으로 나타남.

※ ‘말해야 한다’는 응답은 초등학교, 탈북청소년의 정체성을 한국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 학교급, 탈북청소년의 정체성에 대한 인식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보여줌.

※ ‘말하지 않아야 한다’는 응답은 중학교, 서울, 가정형편이 어려운 편이라고 생각하는, 탈북친구가 있는, 탈북청소년의 정체성을 한국 사람이면서 동시에 북한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 학교급, 지역, 탈북친구 여부, 탈북청소년의 정체성에 대한 인식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보여줌.

■ 탈북청소년 신상을 공개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유

▶ 탈북청소년의 과반수정도와 일반(남한)청소년의 2/3정도는 ‘차별받을 것 같아서’ 탈북청소년이라는 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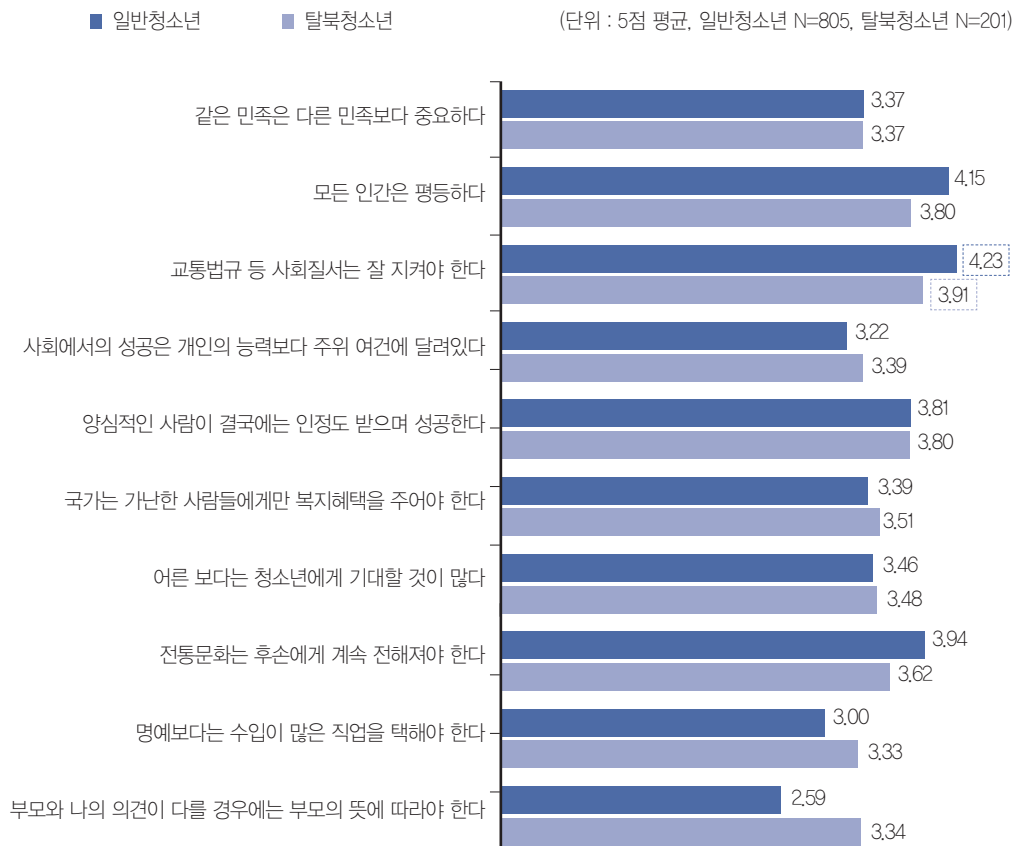
– 탈북청소년 과반수정도(42.3%)가 ‘차별받을 것 같아서’라고 응답하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관심 받는 것이 싫어서(15.3%)’, ‘말할 용기가 없어서(7.2%)’ 순인 것으로 나타남.

※ ‘차별받을 것 같아서’라는 응답은 여학생, 북한 출생, 초등학교, 한국학교 1년 이상 –

- 5년 미만 재학, 가정형편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자신의 정체성을 한국 사람이면서 동시에 북한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 ‘관심받는 것이 싫어서’는 자신의 정체성을 북한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 ‘말할 용기가 없어서’는 공부를 잘하는 편이라고 생각하고 가정형편도 넉넉한 편이라고 생각하는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일반(남한)청소년 2/3정도(64.1%)가 ‘차별받을 것 같아서’라고 응답하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말할 필요가 없으므로(23.5%)’, ‘많은 관심을 받게 되므로(5.4%)’순으로 나타났으며, 기타 응답으로는 한민족(같은 한국인)이기 때문에, 상처 받을 것 같아서 등의 이유인 것으로 나타남.
- ※ ‘차별받을 것 같아서’라는 응답은 충청도 및 경상도, 탈북친구가 없는, 탈북청소년의 정체성을 북한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 ‘말할 필요가 없으므로’는 서울, 공부를 잘하는 편일수록, 탈북친구가 있는, 탈북청소년의 정체성을 한국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 ‘많은 관심을 받게 되므로’는 전라도, 공부를 못하는 편이라고 생각하는, 가정형편이 어려운 편이라고 생각하는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

■ 탈북 · 일반(남한)청소년의 공동규범과 가치에 대한 인식차이

- ▶ 탈북청소년들은 가족과 직업관련 규범과 가치 측면에서, 일반(남한)청소년들은 윤리와 전통 관련 규범과 가치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 탈북청소년과 일반(남한)청소년들의 공동규범 및 가치에 대한 생각의 차이를 살펴보면, ‘부모와 나의 의견이 다를 경우에는 부모의 뜻에 따라야 한다’는 항목에 대해서는 일반(남한)청소년 2.59, 탈북청소년 3.34로 다른 항목에 비해 두 집단 간 차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이밖에도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 ‘교통법규 등 사회질서는 잘 지켜야 한다’, ‘전통문화 속에는 우리 민족의 얼과 꿈이 깃들어 있어 후손에게 계속 전해져야 한다’, ‘명예보다는 수입이 많은 직업을 택해야 한다’ 등의 항목에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임.



【그림 1】 탈북·일반(남한)청소년들의 공동규범 및 가치에 대한 인식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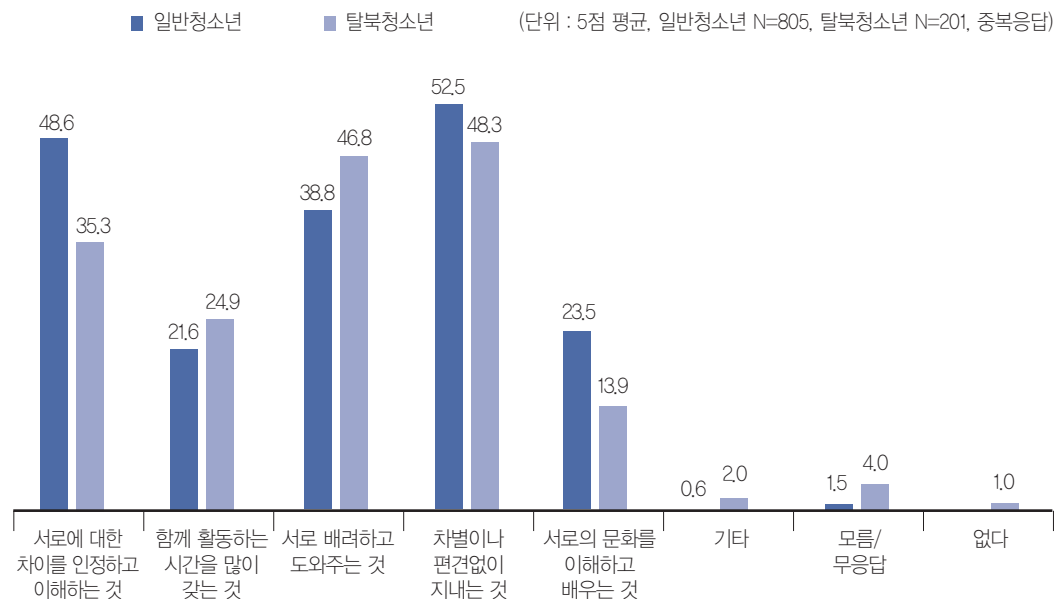
■ 탈북·일반(남한)청소년의 한국인으로서의 자긍심에 대한 인식

- ▶ 탈북청소년은 2/3정도(61.2%)만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일반(남한)청소년은 3/4정도(74.3%)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남.
 - 탈북청소년 중 한국 국민인 것이 '자랑스럽다'는 응답은 입국시기 2000~2005년, 한국학교 재학기간이 길수록, 공부를 잘하는 편이라고 생각할수록, 자신을 한국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 유의미한 차이를 보임.
 - 일반(남한)청소년 중 '자랑스럽다'는 응답은, 초등학생, 공부를 잘하는 편이라고 생각하는 집단, 가정형편이 넉넉한 편이라고 생각하는 집단, 탈북친구가 있는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 학교급, 성적, 가정형편, 탈북청소년친구 존재여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임.

- ▶ ‘자랑스럽지 않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탈북청소년(3.0%)에 비해 일반(남한)청소년(4.8%)이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일반(남한)청소년 중 한국 국민인 것이 ‘자랑스럽지 않다’는 응답은 남학생, 중학교, 경기도, 공부를 못하는 편이라고 생각하는, 가정형편이 어려운 편이라고 생각하는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탈북 · 일반(남한)청소년의 사회통합을 위해 필요한 요인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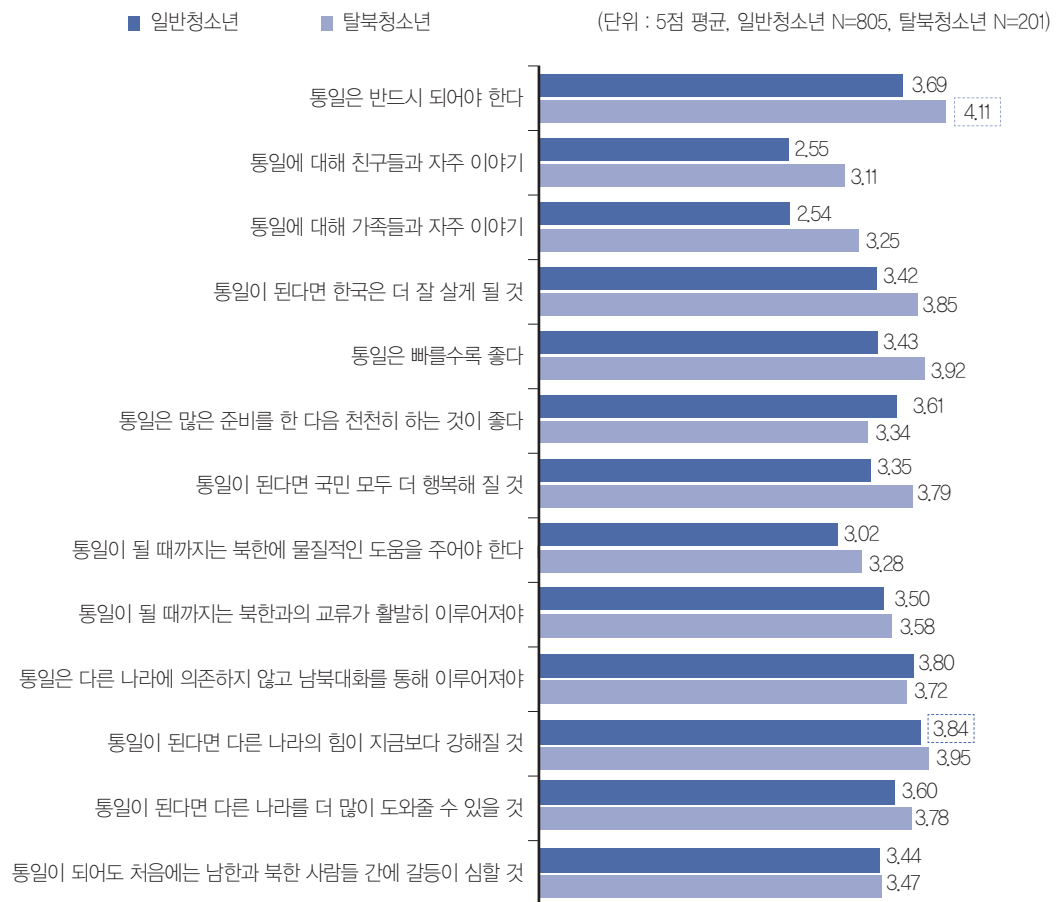
- ▶ 탈북청소년과 일반(남한)청소년의 과반수 정도는 서로 잘 지내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중복응답) ‘차별이나 편견 없이 지내는 것’이라고 생각함
 - 탈북청소년들은 ‘차별이나 편견 없이 지내는 것’이라는 응답이 48.3%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서로 배려하고 도와주는 것(46.8%)’, ‘서로에 대한 차이를 인정하고 이해하는 것(35.3%)’, ‘함께 활동하는 시간을 많이 갖는 것(24.9%)’,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배우는 것(13.9%)’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 ‘차별이나 편견 없이 지내는 것’이라는 응답은 공부를 잘하는 편일수록, 자신이 한국 사람이지만 근본은 북한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집단에서, ‘서로 배려하고 도와주는 것’이라는 응답은 자신이 한국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일반(남한)청소년들은 ‘차별이나 편견 없이 지내는 것(52.5%)’, ‘서로에 대한 차이를 인정하고 이해하는 것(48.6%)’, ‘서로 배려하고 도와주는 것(38.8%)’,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배우는 것(23.5%)’, ‘함께 활동하는 시간을 많이 갖는 것(21.6%)’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 차이를 보이고 있음.
 - ※ ‘차별이나 편견 없이 지내는 것’은 여학생, 탈북청소년은 북한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집단에서, ‘서로에 대한 차이를 인정하고 이해하는 것’은 여학생, 경상도, 탈북친구가 없는, 탈북청소년은 한국 사람이지만 근본은 북한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집단에서, ‘서로 배려하고 도와주는 것’은 남학생, 초등학교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2】 탈북·일반(남한)청소년들의 사회통합을 위한 필요요인에 대한 인식

■ 탈북·일반(남한)청소년의 통일의식 수준

- ▶ 통일준비 및 방법에 대한 인식차이 : 탈북청소년들과 일반(남한)청소년들 모두 통일은 다른 나라에 의존하지 않고 남북대화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탈북청소년들은 일반(남한)청소년들에 비해 통일에 대해 친구들이나 가족들과 더 자주 이야기 하고, 통일은 반드시 되어야 하고, 통일은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남.
- ▶ 통일대비 상호교류에 대한 인식차이 : 일반(남한)청소년들에 비해 탈북청소년들이 더 높은 수준으로 '통일이 될 때까지는 북한에 물질적인 도움을 주어야 한다', '통일이 될 때 까지는 북한과의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함.
- ▶ 통일이후 전망에 대한 인식차이 : 탈북청소년들이 일반(남한)청소년들에 비해 더 높은 수준으로 '통일이 된다면 국민 모두 더 행복해 질 것이고, 더 잘 살게 될 것이며, 다른 나라를 더 많이 도와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함.



【그림 3】 탈북·일반(남한)청소년들의 통일에 대한 인식수준

II. 탈북청소년 지원체계 현황

■ 탈북청소년 지원체계 현황

- ▶ 정부차원의 탈북청소년 지원은 통일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통일부는 탈북청소년 초기 적응지원과 거주지 보호기간 5년에 초점을 맞추면서 정착의 전 지원과정을 담당하고 있음. 초기 정착교육지원은 하나원 사회적응교육과 이후 거주지 학교 편입시 학비지원과 학력·자격 인정, 민간교육시설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2010년부터는 통일부 산하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운영을 통해 거주지에서의 학교 생활적응 및 교육지원과 관련한 체계적·통합적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교육부는 2009년 8월 탈북청소년에 대한 종합적 교육대책을 수립, 이 일환으로 한국교육개발원을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로 지정하여 사업을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탈북청소년 교육정책은 대부분 시·도 교육청을 통해 개별 학교를 지원하고 있음.

【표 3】 정부 부처의 탈북청소년 교육지원 현황

정부 부처	지원 내용
통 일 부	- 하나원 운영 : 초등 위탁교육(삼죽초), 하나둘학교 운영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운영 - 하나센터 운영 - 한겨레학교 운영 지원 - 학력 인정 - 대학특례입학 및 장학금 지원
교 육 부	- KEDI 탈북청소년교육지원특임센터 운영 - 하나원 하나둘학교 교사 파견 및 협력학교 지원 - 한겨레학교 운영 지원 - 초·중·등교육기관(학교)을 통한 맞춤형 교육 지원 - 학력심의위원회 운영 - 일반학교 편·입학 및 교육비 지원
여성가족부	-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운영 - 하나원 통합문화캠프 교육지원 - 제3국 출생 탈북청소년(비보호) 교육지원

- ▶ 탈북청소년 교육지원 전담기관으로는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과 탈북청소년교육지원특임센터,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등이 있음.
- 탈북청소년 교육지원을 담당하는 전문기관으로는 통일부 산하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과 교육부 산하 탈북청소년교육지원특임센터, 여성가족부 산하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이 대표적 임.

【표 4】 탈북청소년 교육지원 전담기관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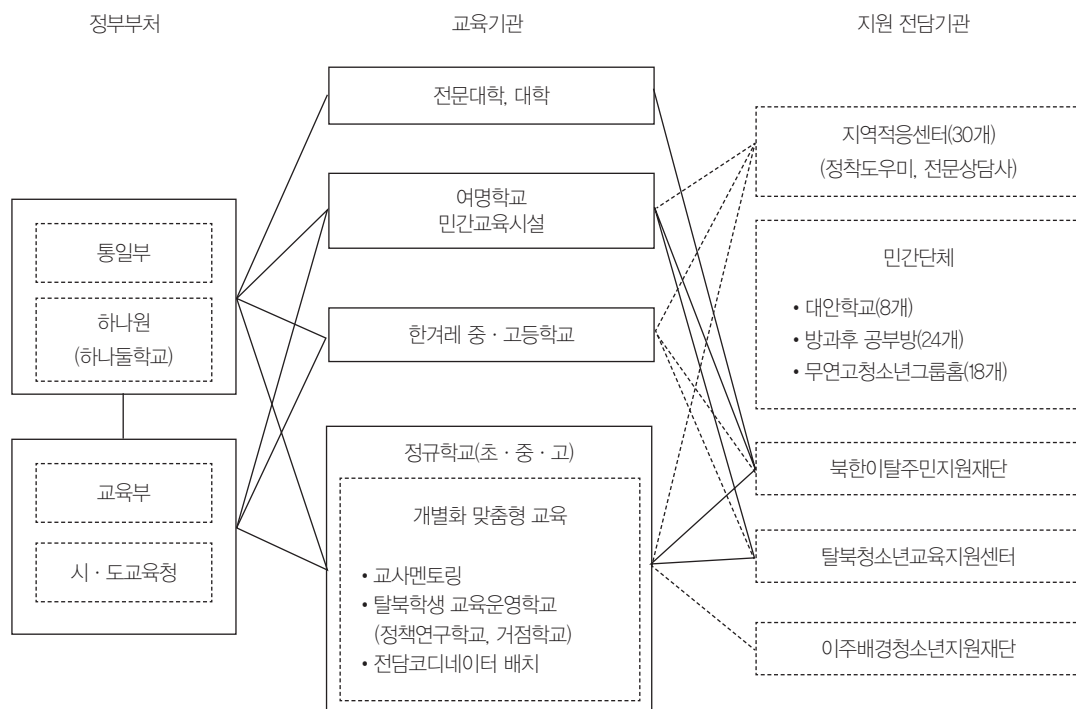
지원전담기관	지원 내용
북한이탈주민 지원재단	- 중·고·대학생·대학원생 대상 생활비보조 장학금 지급 - 민간교육시설운영지원: 대안교육시설, 방과후 공부방, 무연고 탈북청소년 그룹홈 - 학업역량 지원: 영어화상교육, 학습지 지원 - 탈북학생 전담코디네이터 배치 운영: 학생 지도 및 학부모 상담 - 진로진학 지도: 대학입시박람회, 전문대학입시설명회 - 통합교육 역량 강화: 경진대회, 예비대학 운영 - 민간교육시설 실무자 연수 - 탈북청소년 관련 정책연구 개발 - 종합상담센터·취업지원센터 운영: 교육·진학·취업 상담
탈북청소년교육지원 특임센터	- 하나원, 하나둘학교 교재개발과 교육 지원 - 예비학교 운영 지원과 컨설팅 - 교재 개발: 통일대비 표준교재, 기초학력 향상 보충교재 - 진로지도 및 역량강화: 진로상담매뉴얼 개발, 진로상담지원단 운영, HOPE 프로그램 운영 - 탈북학생 지도 교원 연수 - 상호이해교육 자료와 영상 개발 - 탈북학생 실태분석 및 교육지원 관련 연구
이주배경 청소년 지원재단	- 하나원 탈북청소년들을 위한 비교문화체험프로그램 - 하나원 퇴소 이후 전국적으로 분산되는 탈북청소년들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정보 안내, 온오프라인 상담 등 진행 - 탈북청소년과 다문화가족 자녀 등 이주배경이 다른 청소년과 일반청소년들이 함께 하는 통합프로그램 운영

▶ 민간교육시설, 무연고 탈북청소년 그룹홈 등도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의 운영 예산 일부를 지원받아 탈북청소년 교육을 담당하고 있음.

【표 5】 탈북청소년 대상 민간대안학교 현황(2013년)

학교명	개교일	소재지
두리하나국제학교	2009.10	서울 서초구
우리들학교	2010.7	서울 관악구
여명학교(인가)	2004.9	서울 중구
여명학교(미인가)	2001.9	서울 중구
하늘꿈학교(서울)	2003.3	서울 송파구
드림학교	2003.3	충남 천안
한꿈학교	2004.4	경기 의정부
한울학교	2008.3	경기 남양주

▶ 2013년 현재 정부부처, 공공기관, 민간단체, 학교를 포함하는 탈북청소년 교육지원체계는 다음과 같음.



【그림 4】 탈북청소년 교육지원체계

Ⅲ. 탈북청소년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방안

■ 탈북청소년 교육지원을 통한 사회통합 방안

- ▶ 멘토교사 사전연수 실시 및 일반청소년과의 1:1멘토링사업 활성화
 - 멘토링 사업 시작 시 멘토 교사에 대한 사전연수를 실시, 탈북청소년 및 멘토링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입국시기 및 적응상태에 따라 멘토링 내용도 조절해야 하며, 일반청소년과의 1:1 멘토링사업도 활성화 시켜야 함.
- ▶ 전담코디네이터 역량 강화 및 지역사회 협력네트워크 구축
 - 전담코디네이터를 통하여 탈북청소년에 대한 전문화된 교육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한 점은 매우 고무적으로 앞으로도 전담코디네이터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역량을 강화하도록 지원할 필요 있음. 또한 지역사회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탈북청소년에 대한 중복서비스를 조절함으로써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 및 안정적 지지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탈북청소년 지원체계 개선을 통한 사회통합 방안

- ▶ 탈북청소년 교육이력시스템 구축을 통한 맞춤형 교육지원
 - 탈북청소년의 적응단계별 지원체계의 관점에서 탈북청소년 교육이력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탈북청소년 교육을 위한 기초적인 정보가 연계 제공되어야 담임교사나 학교가 바뀌는 것에 상관없이 탈북청소년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교육지원이 이루어지는 기초자료가 되기 때문임. 정착단계별 기관 연계가 이루어지면 교육부에서 2013년 사업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탈북학생사례관리시스템 구축도 연동될 수 있을 것임.
- ▶ 탈북청소년 정착지원 협의체 구성 및 전담기관 건립·운영
 - 탈북청소년 통합적 교육지원체계 개선과 관련하여 통일부와 교육부의 업무협력과 정책 조율기능을 보다 강화해야 할 뿐만 아니라 통일부와 교육부 산하기관과 학교간 정착지원 협력네트워크 또한 강화하기 위하여 부처간, 관계기관간, 거주지 학교와 지역 사회단체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이를 전담할 기관의 건립·운영이 필요함.

▶ 탈북청소년 가족통합적 지원체계 구축

- 제3국출생 탈북청소년이 증가하면서 이들 교육에 대한 부처간, 기관간 정책 조율과 함께 북한이탈주민가정에 대한 가족통합적 지원체계가 구축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탈북청소년 이해교육 및 연수 강화

- 탈북·일반(남한)청소년 통합 및 효율적인 서비스전달을 위해서는 탈북청소년 관련 학교와 공공기관의 실무자들은 물론 일반(남한)청소년과 학부모, 더 나아가서는 관련 기관과 국민을 대상으로 한 탈북청소년 이해교육을 제도적으로 확장해 나가야 함.

▶ 탈북청소년 학부모 대상 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교육 제도화

- 한국 학교에서 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는 탈북청소년의 학부모 또는 제3국출생 북한이탈주민자녀의 학부모는 우리나라 학교의 교육과정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이들 학부모 대상 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교육의 제도화가 필요함.

■ 청소년활동 및 시설을 통한 탈북청소년 사회통합 방안

▶ 탈북청소년 대상 청소년활동 활성화

- 국제성취포상제활동, 청소년수련활동인증 프로그램 등과 연계한 활동 지원을 통해 탈북청소년들의 활동기록을 관리하고, 이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들을 찾아내고 개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며, 다양한 청소년동아리들과의 연계를 통해 일반(남한)청소년들과 자연스럽게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공동체의를 배울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임.

▶ 탈북청소년대상 청소년시설활용 사회통합프로그램 개발·보급

- 탈북청소년 사회통합을 위해 청소년시설을 활용한 청소년활동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 감각적으로 배우는 활동, 다양성에 대한 관용과 유연성을 가질 수 있는 활동, 북한에 대한 이해를 확장시킬 수 있는 활동, 정서적 안정을 얻을 수 있는 활동, 자신이 원하는 삶이 무엇인가에 귀 기울일 수 있는 활동 등을 통해 자신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스스로 그 고민들을 활동으로 연결해 나가는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함.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